



현빈·손예진 '사랑의 불시착' 서 北 특급 장교·南 재벌상속녀 로맨스 연기

동갑내기 톱배우 현빈(37)과 손예진이 호흡을 맞춘 tvN 주말극 '사랑의 불시착'이 연착륙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영화 '협상'에 이어 다시 만난 현빈과 손예진은 9일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 재밌다"고 입을 모으며 자신감을 보였다.

'사랑의 불시착'은 어느 날 돌풍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손예진 분)와 그녀를 돕고 지키다 사랑하게 되는 북한 특급 장교 리정혁(현빈)의 로맨스를 그린다.

손예진은 "대본을 볼 때 보통 객관적으로 보는데 너무 재밌어서 몰입했다"며 "성공밖에 모르던 세리가 일상일 대 위기에 봉착하고, 북한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영동한 모습을 보이는 점도 재밌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 '공조' (2017)에서 한 차례 북한군 역할을 했던 현빈은 "공조"에서는 군인 외 다른 모습이 많다. 경쾌한 작품을 하고 싶었던 시점에 이 작품을 만나 정말 재밌게 촬영 중이라며 "예기치 못한 상황, 배경에서 오는 예상치 못한 스토리 전개가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현빈과 손예진은 그간 두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으나 부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두 사람 호흡에 대한 세간의 기대가 한층 클 수밖에 없다. 배우들 역시 '궁합'을 자연스럽게 강조했다.

현빈은 열애설에 대해 "저희는 웃어넘겼던 일이고 그게 작품을 선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선을

tvN 주말극 14일 밤 9시 첫 방송

영화 '협상'에 이어 두번째 호흡 넷플릭스 통해 전 세계에 공개도

그였다.

그는 그러면서 "협상"은 다른 공간에서 따로 연기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같은 공간에서 예진 씨와 호흡해보고 싶단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작품이 이왕이면 더 밝고 경쾌했으면 좋겠고, 예진 씨의 매력이 더 많이 보일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진 씨는 제게 정말 좋은 파트너다. 한 공간에서 작업하니 훨씬 많은 것을 보고 배우로서도 많이 배운다.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라고 극찬했다.

손예진 역시 "배우가 다시 함께 작품을 할 기회가 굉장히 드문데, 인연인 것 같다"며 "이 시나리오를 읽으며 리정혁과 현빈 씨는 100% 싱크로율을 보인다고 생각했다. 이 역할을 꼭 현빈 씨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호흡은 점점 더 잘 맞아간다"고 화답했다.

'사랑의 불시착'에는 유학파 첼리스트이자 평양의 '퀸카'인 서단 역의 서지혜, 비밀로 가득한 사업가이자 사기꾼 구승준 역의 김정현도 출연한다.

특히 건강 문제로 전 작품에서 중도 하차하고 공백기 후 오랜만에 복귀한 김정현은 "건강을 되찾았을 때 제작진께서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고 격려해줘서 감사했다"고 인사했다.

네 사람 외에 오만석, 김영민, 김정남, 김선영, 장소연 등 베테랑 배우들이 조연으로 나선다.

극본은 '내조의 여왕' (2009), '역전의 여왕' (2010-2011), '넝쿨째 굴러온 당신' (2012), '별에서 온 그대' (2013-2014), '프로듀사' (2015), '푸른 바다의 전설' (2016-2017) 등 수많은 히트작을 탄생시킨 '이야기꾼' 박지은 작가가 맡았다.

연출도 '로맨스가 필요해' (2011), '굿와이프' (2016), '라이프 온 마스' (2018), '로맨스는 별책부록' (2019) 등에서 섬세한 표현력을 보여준 이정호 PD가 맡아 기대를 모은다.

이 PD는 "북한 소재 자체가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드라마상에서는 네 남녀가 로맨스를 할 수 있는 단절된 공간으로서 작용한다. 로맨스와 어우러지는 재미 요소로 보일 것이고, 이 드라마는 굉장히 유쾌하고 발랄한 로맨틱 코미디"라고 말했다.

'사랑의 불시착'은 14일 밤 9시 첫 방송 하며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영어권,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첫 방영일부터 매주 정규방송 종료 후 공개되며, 일본과 유럽 지역은 내년 2월 16일 전화차 동시 공개된다. /연합뉴스

광주CBS '전두환의 공작, 505보안부대'

12·13일 오후 5시 5분

2부작 특집 프로그램 방송

광주CBS가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전두환의 공작, 505보안부대'라는 제목으로 2부작 특집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한다.

광주CBS 표준 FM(103.1MHz)을 통해 방송되는 2부작 특집 프로그램은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오후 5시 5분부터 50분 동안 방송된다.

12일 방송되는 특집 프로그램 1부 '전두환의 공작, 505보안부대-5·18 10일간의 비밀작전'에서는 505보안부대에서 5·18의 모든 시나리오와 작전이 구성되고 실행됐음을 알린다. 또 5·18 당시 505보

안부대에 끌려가 고초를 겪고 지금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13일 방송되는 특집 프로그램 2부 '전두환의 공작, 505보안부대-끝나지 않는 5·18 비밀작전'에서는 1980년 이후 보안부대가 5·18의 진실을 덮기 위해 어떻게 5·18 피해자들을 괴롭혀 왔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5·18 40주년을 맞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정리해 본다.

이번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은 광주CBS 조성우 PD는 "이번 특집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505보안부대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한다"면서 "내년 5·18 40주년을 맞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기생충' 수상 잇따라...송강호, LA비평가협회 남우조연상

작품상·감독상 등 3관왕

봉준호 감독 '기생충' (사진)이 북미지역에서 연일 상을 추가하고 있다.

9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기생충'은 8일(현지시간) LA 비평가협회로부터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조연상(송강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생충'은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아리시리맨'을 제치고 감독상과 작품상을 받았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기생충'은 이날 발표된 토론토비평가협회(TFCA)상에서도 작품상과 외국어상, 감독상 3관왕을 차지했다.

앞서 '기생충'은 전미비평가협회(외국어영화상)와 애틀랜타 비평가협회(감독·각본·외국어영화상)로부터 상을 받았고, 최근 뉴욕타임스(NYT) 선임 평론가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영화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기생충'이 제7회 골든글로브상 후보작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골든글로브상을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HFFPA)는 한국시간으로 9일 밤 10시 제7회 골든글로브상 후보작을 발표한다.

골든글로브상은 아카데미상(오스카)과 함께 미국 양대 영화상으로 꼽힌다. '기생충'은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에 해당하는 '베스트 모션 픽처-포린 랭귀지' 부문 후보에 선정될 것으로 할리우드 현지 매체들은 예상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랑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닥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MBC 특별생방송 나눔으로 행복하 세상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특집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슬기로운 어린이 생활(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45 육탄방의 문제아들(재)	00 12 MBC 뉴스 20 MBC 특별생방송 나눔으로 행복하 세상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형 시리즈 55 특목 보형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KBS 재능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5 기억, 록, 100년을 탐험하다 20 헬로키티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모모야 놀자 스페셜 50 뽀뽀뽀 모모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나쁜사랑(재)	00 2019 물환경대상 시상식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 공감(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유아한 소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생존자들	55 농업이 미래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50 편애중계	
[10]	00 역사자널 그날 55 더 라이브	00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00 VIP
[11]	35 UHD 스포터 40 바다 건너 사랑	20 슬기로운 어린이 생활	10 PD수첩	2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결작 다큐멘터리(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KBS 중계석 루트비히 트리오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건축탐구 - 집	17:45 마사와 곰(재)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큐프라임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9:00 스파이더맨
07:45 페파 피그	14:45 몰랑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당동당 유치원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00 머털도사
08:30 애코와 친구들	15:10 로보카 폴리(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원더랜드 로키, 알래스카 -신이 빛은 놀이>
09:00 엄마 까투리	15:55 엄마 까투리(재)	21:30 한국기행
09:30 원더볼즈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겨울, 강원도의 맛 2부 산사에 얼음꽃 필 무렵>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21:50 EBS 다큐프라임
10:30 한국기행	16:40 당동당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2:45 건축탐구 - 집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3:35 미래교육 플러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0일 (음 11월 14일 辛巳) ☎ 010-9790-8237

<p>36년생 잘 헤아려 봐야할 일이 있겠다. 48년생 자연스러움이 제일 무난할 것이니 항상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60년생 자기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임하라. 72년생 본전만 챙기더라도 선방한 것으로 자기 위안해도 된다. 84년생 바쁘지만 하고 싶리는 박해겠다. 96년생 본말이 전도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33, 84</p>	<p>30년생 으뜸의 것으로 기준을 삼을 필요가 있다. 42년생 소중한 인연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54년생 신중히 진력한다면 성과는 예상했던 바보다 크다. 66년생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느냐. 78년생 천재일우의 기회이니라. 90년생 피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26, 55</p>
<p>37년생 활이 꺾이고 화살이 다 떨어진 이치이다. 49년생 절대적인 기준과 소신을 가려라. 61년생 파격적으로 변화한 위상에 당황할 수도 있다. 73년생 조심으로 돌아가서 겸허히 수용하는 편이 나올 것이다. 85년생 가변적인 상황이니 탄력적으로 대처하라. 97년생 액만 그대로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6, 61</p>	<p>31년생 장기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43년생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풍성한 성과를 거두는 날이다. 55년생 상대의 숨은 의중은 따로 있느냐. 67년생 의도한 일은 분개도로 진입하고 있다. 79년생 새옹지마요. 전화위복의 격이다. 91년생 중차대한 일이므로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4, 14</p>
<p>38년생 전반적인 관리에 세심한 공을 들여야 할 때다. 50년생 시종일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성취할 가능성이 높다. 62년생 과감히 개선하라. 74년생 성과를 보지 못 하라. 86년생 내색하지 않음이 차라리 더 나은 것이다. 98년생 순리대로 행하면 형통 하라. 행운의 숫자 : 75, 65</p>	<p>32년생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이를 만나게 되리라. 44년생 횡재수가 있으니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56년생 말도 꺼내지 않는 것이 낫겠다. 68년생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으니 하등의 지장이 없다. 80년생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도량이다. 92년생 활로를 개척하는 갑작이 되어 줄 것이니 기탄없이 수용하라. 행운의 숫자 : 79, 36</p>
<p>39년생 영문도 모른 채 휘둘릴 수도 있는 성국이다. 51년생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말라. 63년생 생각이 못했던 행운이 다가온다. 75년생 상상만 했던 일이 실제의 상황이 된다. 87년생 얻는 바가 상당히 많겠다. 99년생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96, 28</p>	<p>33년생 급하게 뛰어들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정신없겠다. 45년생 속 시간 길이질수록 효과, 역시 점점 커질 것이니라. 57년생 열린 마음이 발전을 이룰 것이다. 69년생 단순한 비교는 오만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81년생 상대의 속셈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93년생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친다면 손실이 크다. 행운의 숫자 : 59, 17</p>
<p>40년생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확실히 전환해 보자. 52년생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어떠한 판국에서나 헤쳐 나갈 수 있다. 64년생 바람직한 행국으로 펼쳐지고 있으니 당당하게 나서도 되는 때이다. 76년생 바로 지금이다. 88년생 다양하게 세분화 되면서 체계가 서리다. 00년생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수용하고 보자. 행운의 숫자 : 52, 03</p>	<p>34년생 귀인으로 부터 질질했던 당해 사형에 대해 은혜를 입게 된다. 46년생 뒤도 돌아보면서 가는 것이 안전하다. 58년생 광적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크게 당황할 수도 있겠다. 70년생 현안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82년생 상대의 제안을 원대로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94년생 고통의 끝은 지극히 달콤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98</p>
<p>41년생 의례적인 절차를 무시한다면 부조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느니라. 53년생 관리를 잘 하라. 65년생 필히 경험자나 안내자와 함께하라. 77년생 성국을 아우를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 89년생 대담하기는 하지만 자신과의 인연은 박할 것이니라. 01년생 폭발적인 성장 동력이 발생하리 행운의 숫자 : 61, 11</p>	<p>35년생 하등의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니 기탄없이 진행하라. 47년생 뻔히 알면서도 빠져드는 안타까움이 있다. 59년생 일단락 지어놓고 보자. 71년생 실익은 있으나 기대해왔던 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83년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형국에 놓여있다. 95년생 비슷한 수준으로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행운의 숫자 : 62, 21</p>